

한·중·일 청소년 문화교류 나선다

한국전통문화전당, 27~29일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문화축제 '전통놀이 삼국지'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7~29일 3일간 야외마당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문화축제인 '전통놀이 삼국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 일본 시즈오카현 학생들이 참여해 문화교류를 펼친다.

이에 따르면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18명, 시즈오카현 살레지오고등학교에서 9명, 청두시 문화예술학교에서 9명이 참가하며, 이들의 소통과 교류역할이 담당할 대학생 멘토 9명 등 모두 45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3일간 '동아시아 청소년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三國)의 전통놀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행사로는 △청소년 사절단 대면식을 시작으로, 한·중·일 16개 놀이미션을 수행하는 △삼국지 유람, 전주한옥마을 일대 문화를 탐방하는 △전주문화여행, 전통놀이 기반의 솜뿔 제작 콘서트 △감각탈한 쇼츠! 토너먼트식 전



놀이공연 흥(興) 포스터
놀이대회 △청소년 놀이 한 판 △놀이공연

△청소년 사절단 해단식 등이다. 특히 동아시아 청소년들은 축제기간 △한국의 윷놀이·쌍륙·고누·격구·사방치기·구슬치기·딱지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 △일본의 와나게·다부마오토시 △중국의 짜앤즈 등 각국의 전통놀이를 접하게 된다.

한편 행사기간 동아시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과 가족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8일 오후 7시 '놀이공연 흥(興)', 29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우리놀이 삼국지 유람' 등이 운영된다.

20일까지 네이버폼(naver.me/5qAm99wA) QR코드 접속가능에서 사전 신청 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문화축제는 각국의 전통놀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은 전통놀이문화의 명맥을 이어 나갈 세대로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복놀이팀(063-281-154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민속악 축제-무(巫)'

우리나라 대표 3대 굿 주제 전통예술 정수 선사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민속악 축제-무(巫)'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굿을 주제로 열리며, 경기도도당굿, 동해안별신굿, 진도씻김굿과 더불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과의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 장시간 행해지는 무속 의례를 무대예술화로 선보이는 박밤태와 굿 프렌즈, 전통연희단 유람, 김태영과 신정악회 등 굿판의 전통을 지키는 예술인들이 대거 출연해 전통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다양한 지역의 굿 음악과 더불어 이정희 명무의 도살풀이춤, 김동연 무녀의 바라춤, 강은영 명무의 지전춤 등 무당춤의 신비로운 매력과 신명을 전하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누리집(http://namwon.gugak.go.kr)로 가능하다.



경기도도당굿 도살풀이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재청 이경훈 차장, 김제 금산사 미륵전 점검

집중호우 문화재 피해상황 현장점검·예방 방안 논의

문화재청 이경훈 차장이 지난 21일 금산사에 방문하여 금산사 미륵전 등 10여 개의 국보 보물이 밀집한 금산사 일대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제시 이찬준 부시장, 전북도 김원식 문화유산 보존팀장이 참여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상황 현장점검 및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보로 지정된 금산사 미륵전의 막새기와 2장이 탈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국가 유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전

국적으로 59건의 피해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제 부시장의 안내로 금산사 주지(일원)와의 면담, 금산사 미륵전 피해 상황 점검, 금산사에 소재한 국가 문화재 점검, 재난 상황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등의 협의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화재청 차장과 함께 긴급 점검에 나선 김제 이찬준 부시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전통기와의로 조성된 문화재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기와의 탈



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화재청 차장은 "긴급보수비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필오케스트라, 가족오페라 '신공쥐' 29일 공연

남원필오케스트라(단장 이소윤)는 오는 29일 오후 3시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오페라 '신공쥐'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족 오페라 '신공쥐'는 계부인 놀부아빠와 신팔쥐에게 괴롭힘을 받지만 조력자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가족 오페라인 만큼 전래동화 공쥐팔쥐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반으로 무대를 연출하고, 놀부와 뽕뽕, 방자 등 익숙한 캐릭터

를 소재로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 특히 창작 15곡은 오페라 가수들의 풍부한 성량으로 세밀한 감정을 전할 예정이다.

출연진에는 신공쥐 역에 소프라노 송다은, 미스터 뽕뽕 역에 테너 김지훈, 방자 역에 베이스 이승희, 놀부 아빠 역에 바리톤 류동희, 신팔쥐 역에는 소프라노 이선아, 뽕뽕요정에는 뮤지컬 배우 표지원, 동백요정에는 뮤지컬 배우 송다혜가 참여한다.



연출가 장희원은 "이번 공연이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족들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2)과 (사)남원필오케스트라(010-2101-881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마스터 클래스 교육·교수음악회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 연주 역량강화·성장 도모... 전석 무료 관람

장수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기회사업인 공모사업에 5천만 원이 선정되었다.

공연형 프로젝트와 자율기획형 프로그램 사업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씩 확보하였는데,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는 '한 분야의 명인, 대가, 거장 등이 직접 하는 수업'으로 국내 권위 있는 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하고 수준 높은 교육지도를 통해 단원들의 연주 역량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5월 25일 진행된 체험형 공연(꿈의 향연)에는 장수초등학교 3~4학년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악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과 단원들의 합주 공연을 관람하면서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예비단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마스터 클래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교수음악회 및 교육)으로 운영되며, 오는 26일 저녁 6시 30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마스터 클래스 교수 음악회가 열린다.

연주자로는 백은교, 옥지연(바이올린), 조재현(비올라), 이현택(첼로), 김길우(클라리넷), 손형원(호른)이 참여하고 문권철 음악감독이 공연을 진행하며, 전석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은 "마스터 클래스 교육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 포스터

과 수준 높은 음악회를 통해 단원들은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을 관람하면서 장미와 무더위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며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